

God's church, God's way - 1st Timothy 2 – Sermon Notes

Title: “1st Timothy 2”

Scripture: 1st Timothy 1:3-7

Date preached: July 20th 2025

Scripture: 1st Timothy 1:3-7

3 As I urged you when I went into Macedonia—remain in Ephesus that you may charge some that they teach no other doctrine, 4 nor give heed to fables and endless genealogies, which cause disputes rather than godly edification which is in faith. 5 Now the purpose of the commandment is love from a pure heart, *from* a good conscience, and *from* sincere faith, 6 from which some, having strayed, have turned aside to idle talk, 7 desiring to be teachers of the law, understanding neither what they say nor the things which they affirm.

3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Review

Last Sunday we set of on our journey exploring Paul's first epistle to Timothy. Today we are going to pick up where we left off last week. In case you have forgotten where that was it was verse number 3. In today's sermon we begin to discover what it was that Timothy was being asked by Paul to do. But before we look at that let's spend some time reviewing the key things from last week.

We spent some time looking at the background, history, language and context of the letter. Knowing these details helps us to better understand and appreciate what it is we are reading. Actually we always apply this hermeneutic (typically subconsciously) to every piece of writing we examine. If, for example I gave you a piece of paper that started with the line, “Once upon a time, long long ago in a kingdom run by faeries,” what would you think? Obviously you'd think you were reading a fairy tale, or a fantasy story of some kind. You would read and understand it through this lens.

So last week we stood back and examined 1st Timothy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5 W questions. We asked and answered five key questions about the letter; what, who, where, when and why. Let's briefly look at each again and highlight the key things to remember.

지난 주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멈췄던 3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고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다룬 핵심 내용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신의 배경, 역사, 언어, 그리고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알면 본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해석법(대개는 무의식적으로)을 우리가 읽는 모든 글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요정들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 동화나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읽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W 방식으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신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 즉 무엇을, 누가, 어디서, 언제,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각 질문을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핵심 사항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What?

What is 1st Timothy? Well, obviously it's a letter or more accurately an epistle. Epistles were one of the two the primary forms of written communication in the ancient world, the other being letters. Scholars differentiate epistles from letters primarily on the basis of their purpose or intent. Letters were used to convey everyday news or information. Epistles, by contrast were utilised to deliver important truths, teaching (doctrine) or instruction. Typically, and th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the New Testament epistles they were penned (or dictated) by someone of importance. And as a consequence the tone was typically one of a teacher (master) to a student. Simply stated epistles were important documents that would have been treasured and valuable possessions.

They would have been written on scroll or parchment. The author himself may have penned the letter, or dictated it to a scribe. Once complete the scribe would read out the letter ensuring the sentiment conveyed corresponded with the authors wishes. The finished letter would then have been carried by a trusted messenger and delivered by hand to the recipient.

Epistles generally followed a particular format or style. The New Testament writers did not invent a new format for letters. They used the existing Greco-Roman letter writing conventions. Most of Paul's letters follow a similar pattern. They begin with an introduction that identifies Paul as the author, and any relevant associates that are with him. After this the epistle's recipient would be identified, and a greeting extended to them. The letter's introduction is followed by the main body of the letter. The epistles often conclude with a general blessing and personal notes or "shout outs" to particular individuals within the recipient church. As we shall discover Paul's letter to Timothy adheres to this pattern.

1st Timothy along with 2nd Timothy and Titus have been labelled the "pastoral" epistles since the early 18th century. They have been given this label because they deal with issues related to the pastoral care of a church. Paul is instructing his readers (Timothy and Titus) on how to organise and manage a church in a God pleasing way. However, as I pointed out last time it is a rather misleading title. This is because when I say the "pastoral epistles" you automatically conclude that Timothy and Titus must have been pastors. They were not. They were in fact Paul's official representatives. He had left them in these areas to oversee the running of the churches, and not to lead or shepherd them as a pastor would. This is not to say that these men did not have the God given gifts and abilities to pastor a church. Or to suggest that they were not engaged in some aspects of pastoral care. Just that they were not holding the official office of pastor at the time Paul wrote.

무엇?

디모데전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편지, 더 정확히는 서신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글로 쓴 두 가지 의사소통 형태 중 하나는 서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그 목적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서신과 편지를 구분합니다. 편지는 일상적인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반면에 서신은 중요한 진리, 가르침(교리) 또는 교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신약성경에 있는 서신의 경우, 중요한 인물이 직접 쓰거나 받아쓰게 했습니다. 따라서 서신의 어조는 대개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서신은 소중한 귀중하게 여겨진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서신은 두루마리나 양피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직접 편지를 썼거나 서기관에게 받아쓰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은 편지를 쓰고 나서 저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낭독했습니다. 완성된 편지는 믿을 수 있는 전달자가 직접 수신자에게 전

달했을 것입니다.

서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식을 따랐습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새로운 서신 형식을 고안하지 않았고, 기존의 그리스-로마 서신 작성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비슷한 형식을 따릅니다. 바울 서신은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을 소개하는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 서신의 수신자를 밝히고 그들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서론 다음에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축복의 말을 하고 편지를 받는 교회 내의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메모 또는 "칭찬"으로 끝맺습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바울의 디모데 서신도 이러한 형식을 따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18세기 초부터 "목회" 서신으로 불려 왔습니다. 교회의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면 디모데와 디도가 목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아니었고, 바울의 공식 대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교회 운영을 감독하도록 그 지역에 남겨두었지, 목사처럼 교회를 이끌거나 목양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회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목회적 돌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 그들이 목사라는 공식적인 직분을 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Who

We also considered last time who authored the letter and who was the letter's recipient. The epistle begins by stating that the Apostle Paul is the author. That Paul wrote this letter was the traditional view held by the majority of the church for 1900 years. In truth there were a few in the 2nd century church that questioned Pauline authorship. However critics in the 18th century began to seriously question his authorship. As I told you last time I do not believe they have strong enough evidence to make us question the Pauline authorship of this letter. We shall adhere to the orthodox view that the author was Paul.

The letter also clearly states that the intended recipient was Timothy or to give him his Greek name *Timotheos*. Paul had probably first met Timothy when he visited his home-town of Lystra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On his second visit he received a good report about Timothy from the church elders. Their glowing endorsement persuaded Paul to invite Timothy, then most likely in his late teens or early twenties to join him on the gospel trail. Timothy would go on to help and serve Paul faithfully for many years.

We turned next to look at the where and when of the epistle.

누구?

지난주에 이 서신의 저자와 수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은 1900년 동안 대다수 교회가 받아들인 정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사실 2세기의 교회 내에서도 바울이 저자임을 의심하는 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비평가들은 그의 저자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바울이라는 정통적인 견해를 고수할 것입니다.

이 서신은 또한 수신자가 그리스어 이름으로 디모테오스 *Timotheos* 인 디모데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중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교회 장로들로부터 디모데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바울은 당시 십 대 후반이나 이십 대 초반이었을 디모데와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이후 여러 해 동안 바울을 돕고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그후 서신이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Where and when?

With the evidence given to us in scripture we can piece together Paul's timeline and make a pretty accurate estimate of where Paul was when he wrote this epistle. Knowing this also helps us to narrow down when the letter was written.

The Apostle Paul was acquitted and released from house arrest in Rome in 62 AD. Paul realised that his time was limited and he might be rearrested at any moment. Therefore he used the precious time he had to revisit some of the churches he had previously established. This included a visit to Ephesus. Timothy accompanied him on this journey. As we shall soon discover there were a number of serious issues to be resolved in this city. As a result Paul decided to leave Timothy behind as his official representative to help sort the situation out. He left to travel on to Macedonia.

It seems then that this letter was written at some point between 63-64 AD when Paul was either in Macedonia or travelling to this area. Let us finish up our review by briefly looking at the reason why Paul wrote this epistle.

어디서 그리고 언제?

성경에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바울의 연대기를 고려하면 그가 이 서신을 어디에서 썼는지 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서신이 쓰인 시기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기 62년에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전에 세웠던 몇몇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방문도 포함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여정에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었고, 결국 바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공식 대표로 남겨두고 자기는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이 서신은 서기 63-64년 사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었거나 이 지역을 여행하던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Why?

Paul was well aware of the difficulties facing Timothy. It's not easy to go into a place as a “troubleshooter” and sort out the problems. There is a popular British TV show called the “Hotel inspector.” The show features a famous and successful hotelier who visits struggling hotels and gives them guidance and advice. She (the hotel inspector) will point out where they are failing and what steps they could take to resolve the problems. In most cases her advice is well received. Most hotel owners want to see their hotels succeed. But in some instances the hotel owners do not welcome or appreciate her suggestions. They are offended that an “outsider” is telling them what to do and how to run their establishments.

In some ways Timothy was a little like the hotel inspector. He was being tasked with telling pastors and other church leaders that what they were doing was wrong. That they were teaching a false message and as a result hindering the spreading of the gospel. This was a hard truth for these men and their supporters to take. As we can well imagine some of them would not take this criticism well.

So Paul is writing to Timothy with three main purposes in mind.

- 1 To encourage him in his work. Be bold and courageous Timothy.
- 2 To provide official instructions on what God wanted for the church.
- 3 To combat the false teaching that was taking place and remind Timothy of what he was to teach.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it was Paul's intention to rejoin Timothy in Ephesus (1 Tim 4:13). In reality, he was never to return to Ephesus. So now with our review of the introduction complete we are now ready to look at the main body of 1st Timothy.

왜?

바울은 디모데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사"로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텔 검사관 Hotel inspector"이라는 인기 영국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하고 성공한 호텔리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들을 방문하여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녀(호텔 검사관)는 호텔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조언은 잘 받아들여집니다. 대부분의 호텔 소유주들은 자신의 호텔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호텔 소유주들이 그녀의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을 불쾌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디모데는 호텔 검사관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역할이 잘못되었고, 거짓 메시지를 가르침으로써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중 일부는 이러한 비판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1. 그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 – 디모데야,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2.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3. 당시 만연했던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디모데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상기시켜 주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에서 다시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딤후 4:13). 하지만 그는 결코 에베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론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니, 디모데전서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3 As I urged you when I went into Macedonia—remain in Ephesus that you may charge some that they teach no other doctrine,

Verse three marks a rather dramatic transition. Paul's introduction is now over and we are now moving into the main body of the letter. The pleasantries are over it is time to get down to business.

Paul begins by reminding Timothy of how he urged him verbally to stay in Ephesus when he left. Now he is recording this same sentiment in black and white. Timothy could show this as evidence to anyone who doubted that Paul had assigned him this duty. Let's consider what Paul says, Timothy I exhort, beseech, beg you to stay.

Think about how we commonly use the verb "to urge." It's a strong word. It's not one we say casually. We don't usually say, I urge you to join me for a coffee, or I urge you to put your dirty clothes in the laundry basket. No, when we use the word "urge" it accompanies a request, order or command that we really deem to be important. I urge you to stop smoking. I urge you to think carefully before quitting your job. It's a word we use when we really want people to listen carefully, and attend to what we are saying.

So Paul is strongly exhorting Timothy to remain in Ephesus. It's worth considering why Paul might have felt compelled to use this kind of strong language. Was Timothy wavering in his commitment? Perhaps Paul worried that Timothy's timidity, or relative youth (he was probably around 30-35) meant he would feel intimidated by the elders in the church. It would not be easy to confront false teachers and their followers. Did Paul worry therefore that Timothy might quit and run away?

Almost everyone who has worked or served in the church has probably felt the urge to quit. The situation, the ongoing demands or at times the people you have to deal with are difficult or challenging. I heard a pastor joke once saying the best thing about the church is the people, and the worst thing about the church is the people. There's some truth to that statement.

As times then we might feel that it would be easier, and less stressful just to leave. I remember having major problems when I led a praise and worship team a number of years ago. Most of the team were great, but one or two were very difficult people to deal with. They were argumentative and uncooperative. There were issues over pride and ego. To make things even more complicated there were also language and cultural issues. Eventually the frustration and annoyance got to the point that I just wanted to quit. However every time I felt like quitting I got the sense that God did not want me to leave. He wanted me to continue on and learn through the experience. Although it was hard, and deeply frustrating at times I continued to serve. Perhaps Timothy felt the same way as he tried to sort out the problems in Ephesus.

Let me take a few moments to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on Ephesus. What kind of place was ancient Ephesus?

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 절은 다소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서론은 끝났고, 편지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가 떠날 때 디모테에게 에베소에 머물도록 어떻게 권고했는지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때 느꼈던 심정을 이제 글로 쓰고 있습니다. 디모테는 바울이 그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테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디모테야, 네가 머물기를 내가 권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노니."

우리가 흔히 "권고하다 to urge"라는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강한 어조입니다. 대충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커피 한 잔 하러 오라고 권고합니다." 또는 "더러운 옷은 세탁 바구니에 넣도록 권고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고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청, 명령을 동반합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권고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해야 했을까요. 디모테의 헌신이 흔들렸을까요? 바울은 디모테의 소심함이나 비교적 젊은 나이(아마 30~35 세 정도였을 것임) 때문에 교회 장로들에게 위촉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 교사들과 추종자들에게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테가 그만두고 도망칠까 봐 걱정했을까요?

교회에서 일하거나 봉사해 본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상황, 지속적인 요구, 때로는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렵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이고, 가장 나쁜 점도 사람들이다"라는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떠나는 것이 더 쉽고 스트레스도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찬양 예배팀을 이끌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팀원 대부분은 훌륭했지만, 한 두 명은 다루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시비를 걸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자만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언어와 문화적 문제까지 더해져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좌절감과 짜증으로 그만두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아마도 디모테도 에베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잠시 에베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Ancient Ephesus

Well, if we had a time machine and could travel back I think we'd be impressed. Ephesus was a large and beautiful city located near the mouth of the Cayster River. A canal connected the river to the city harbour. This meant that ships had convenient access to and from the Aegean Sea. This connection to the sea combined with the city's location on a major road network led to it becoming a prosperous place of trade and commerce. The constant flow of travellers in and out made it the perfect location to set up a church and disseminate the gospel. This was clearly why Paul had devoted three precious years to establishing the church here (Acts 20:31).

It was also by ancient standards a large city. In fact for many years during the Roman period it was second only to Rome as the largest city in the Empire. In the first century the city was home to between 250-300 thousand people. Among these were a considerable number of Jews who took up residence in this city. Ephesus was the capital and the premier city of Asia Minor's western region. An area known as proconsular Asia.

As befitted a leading regional city, Ephesus had many fine and impressive buildings.

The city possessed splendid market places, gymnasiums, theatres, a triumphal arch and a fabulous library (although this was built after the time of Paul).

The great theatre of Ephesus was one of the largest outdoor theatres in the ancient world. It could hold crowds of up to 25,000 people. They would pack the narrow terraces to watch fights between men and beasts and Taylor Swift concerts.

However the city was best known for a religious building. The awe-inspiring temple of Diana. The temple took over 100 years to construct. I can only assume that they employed British construction workers. It was dedicated to the goddess Diana or Artemis and was widel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Diana was the goddess of the hunt, wild animals, fertility, and the moon. The temple was 130m long, 67m wide and was surrounded by 127 white marble columns that were each 19m high. People came from all over the ancient world to marvel at the temple. One ancient writer wrote of the temple,

“I have seen the Walls of the Hanging gardens of Babylon, the Statue of Zeus of Olympia, the Colossus of Rhodes, the lofty Pyramids, the Pharos of Alexandria and the ancient tomb of Mausolus. But when I beheld the Temple at Ephesus towering in the clouds, all these other marvels were eclipsed.”

Ephesus was also famous for its magic (occult) arts. The “Ephesian Letters,” containing magic formulas written on paper or parchment, were much sought after for use as amulets to ward off evil spirits and to bring good luck.

I hope that brief insight into first century Ephesus has given you some idea of what the city was like. It was a lively, cultured and vibrant place. It would have been an exciting city to visit. Timothy certainly wasn't being left in some boring country town. Anyway back to verse 3.

고대 에베소

타임머신이 있어 과거로 돌아가서 에베소를 구경한다면 정말 인상적일 것입니다. 에베소는 카이스터 강 하구 근처에 위치한 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운하가 강과 도시의 항구를 연결해 주어서 배들이 에게해를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가깝고 또한 육로 도로망이 잘 연결된 교통의 요지였던 덕분에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여행객들 덕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이 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3년의 소중한 시간을 바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사도행전 20:31).

고대 기준으로도 에베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오랫동안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에는 25 - 30 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수도이자 최고 도시였고, 총독 관할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도시답게 에베소에는 훌륭하고 인상적인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시장, 체육관, 극장, 개선문, 그리고 멋진 도서관(비록 이 도서관은 바울 시대 이후에 지어졌지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대극장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극장 중 하나였고, 최대 2만 5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테라스를 짝 채운 관중들은 사람과 짐승의 싸움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종교 건축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건축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영국인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은 다이아나 또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졌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아나는 사냥, 야생 동물, 다산, 그리고 달의 여신이었습니다. 신전은 길이 130m, 너비 67m였으며, 각각 높이 19m인 127개의 하얀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방문하여 이 신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한 고대 작가는 이 신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빌론의 공중 정원의 성벽,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 로도스의 거상, 우뚝 솟은 피라미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신전, 그리고 마우솔로스의 고대 무덤을 보았다. 그러나 구름 속에 우뚝 솟은 에베소 신전을 보았을 때, 다른 모든 건축물의 경이로움을 가려버렸다."

에베소는 마법(오컬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종이나 양피지에 마법의 공식이 적힌 "에베소 편지 Ephesian Letters"는 악령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습니다.

1세기 에베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그 도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고, 방문하기에 흥미로운 도시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결코 지루한 시골 마을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Here is Paul's charge to Timothy.

Remain in Ephesus that you may charge some that they teach no other doctrine,

Paul's specific motivation for Timothy to stay was to maintain correct teaching in the Ephesian church. Note here the use of the word "charge." This is military language. It means to give a strict order from a superior officer. Paul uses this word 8 times in his two letters to Timothy. Here is the message he is conveying through his words.

“Timothy you are a Christian soldier. Here are your orders from the King. Now get out into the field and deliver these order to your men.”

So what is the command (order) that he is to deliver to those under his authority. Simply this, he is to ensure that some (certain people) within the church stop teaching false doctrine. Paul's mention of "some" as false teachers suggests a small group of people. However as we know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often cause a great deal of disruption. Big church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poison of just a few committed individual. As the well known idiom states, “One bad apple can spoil the whole barrel.”Therefore we are to assume that this group, though probably small were influential enough to be a concern.

Let us consider for a moment what it was that they were teaching. There is very little danger to the church when false teachers come along and teach something that is brazenly anti-biblical.

If I stood here next Sunday and tried to convince you that Christ's atoning death on the cross was not sufficient to save sinners. That in order to really be saved we must follow a strict set of rules as laid down by me. What would your reaction be? Hopefully to kick me out of the church.

The danger you see always lies in subtlety. It comes with just a slight twisting or distorting of the truth. The formula is 98% of truth with 2% of deception carefully blended in. That combination can prove deadly.

In Ephesus, it seems there were people who were teaching different things to the truth as laid down by Paul. He remember had received these things (the truth) from Jesus Christ. So Timothy was charged with putting a stop to any teaching that did not agree with the sound words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is command remains in place today for people who are called into leadership positions in the church. No one gets to stand in this pulpit to teach false doctrine to the sheep under my care.

Let us learn a little more about the errors that were creeping into the Ephesian church.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구체적인 동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유지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여기서 "명하다 charge"라는 단어의 사용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군사 용어로, 상관의 엄격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서신에서 이 단어를 여덟 번이나 사용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왕께서 주신 명령이 여기 있다. 이제 전장으로 나가서 이 명령을 네 부하들에게 전하라."

그렇다면 디모데가 그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명령(명령)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는 교회 안의 어떤 사람들(특정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들 some"을 거짓 교사라고 언급한 것은 소수의 무리들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종종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소수의 집요한 사람들의 독으로 인해 파괴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통 전체를 썩게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였을지라도 그들이 우려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거짓 교사들이 드러내놓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제가 정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를 교회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위험은 항상 미묘함에 있습니다. 진실을 살짝 비틀거나 왜곡합니다. 98%의 진실에 2%의 거짓을 조심스럽게 섞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이 전한 진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진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가르침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무도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돌보는 양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잠입했던 오류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nor give heed to fables and endless genealogies, which cause disputes rather than godly edification which is in faith.

The Apostle Paul gives us here some insight into what these false teachers were teaching. They were teaching **fables** or **myths** along with interminable **genealogies**. Paul reminded Timothy that the church was to pay no heed to these made up speculations or flights of fancy. The concept behind “giving heed to” is the notion of attaching or adhering to a certain set or beliefs or teachings. The church in Ephesus was not to attach any importance to the nonsense of these false teachers.

What exactly is in view here when we talk of fables and genealogies? Since Paul is not explicit we are left to speculate. Let us deal first with the issue of fables.

Fables may refer to extra-biblical stories that were being taught as if they were divinely inspired. What had happened over time you see is that people had created stories to plug the gaps or spaces in the biblical account. These had become a part of Jewish tradition and some even accepted them as being true. The Jewish Book of Jubilees, an apocryphal work from the second century BC has a number of legendary additions to the Old Testament which resemble what Paul had in mind. Let me give you an example to demonstrate this notion of extra-biblical story-telling in practice.

How many of you have heard the story that Noah was mocked by his neighbours for building a huge boat? How they laughed at this foolish man devoting all his time and energy to building a boat when they were miles from the sea. I'm sure we've all heard this story. Now, can you direct me to where it says this in scripture. Search all you like, but you won't be able to find a single verse that states this. Now it may indeed have happened, BUT it's NOT in the bible. It's a made up story.

Paul may also have been referring to the Gnostic myths about creation that were beginning to emerge around this time. What about genealogies?

The Jews loved their genealogies. Let's be honest they are the sections of scripture that we tend to skip over. But they were a constant source of interest and speculation to the Jews. They took great pride in discovering a link or connection between them and one of their important forefathers like Abraham or Moses. Now we should not diminish the importance of biblical genealogies. They are very important. The problem here though was that the Jews thought that having this ancestral connection made you more holy or worthy in the eyes of God. So let me be clear genealogies play no part in making a person more holy (righteous) in the eyes of God. So this endless speculation over how one might be a distant relative of Abraham was both a waste of time and potentially dangerous.

Whatever the fables or genealogies were we can define them as being “silly distractions.” Paul opposed this fruitless practice because of what it produced and what it caused Christians to ignore. It produced arguments and controversies that were deeply unhelpful. It caused believers to be drawn away from more profitable study. They should have been studying scripture and taking the gospel

out into the streets of Ephesus not making up nonsense stories.

We are not immune to this kind of thing today. It's interesting how unimportant trivialities or wild speculations often distract us from what is truly valuable. I listen to a number of sermons and bible studies online. I once heard a pastor talking about his online viewing figures. He jokingly said that if he posted a study on biblical giants or UFO's he could get thousands of views. These are exciting, ear tickling subjects. Many are drawn to these subjects. If however he posted a chapter by chapter, and verse by verse exposition of the book of Romans his figures would be in the hundreds. Now I ask you, which of these would be of the greatest benefit to Christians today?

So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were just exploiting the human desire for novelty and intrigue. The eventual fruit of these man-made diversions soon becomes evident. Though they may be popular and even fascinating to people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run they don't produce mature believers who are strong in the faith.

Let us read on and see what lies behind Paul's command to Timothy.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롭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언급합니다. 그들은 신화 **fables, myths** 와 끝없는 족보 **genealogies** 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이러한 지어낸 추측이나 허황된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몰두하다 giving heed to"는 표현은 특정 신념이나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의 허튼소리에 주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신화와 족보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화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가르쳐지는 성경 외의 이야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성경 기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유대 전통의 일부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원전 2 세기의 외경인 유대인의 희년서 **Jewish Book of Jubilees** 에는 바울이 의미하는 것과 유사한 신화적인 내용이 구약성경의 군데 군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적인 이야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조롱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를 만드느라 시간과 정력을 쏟는 이 어리석은 노아를 사람들은 심하게 비웃었다! 아마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무렵 등장하기 시작한 창조에 대한 영지주의 신화 **Gnostic myths** 를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살펴 볼까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의 족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건너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는 관심과 추측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중요한 조상들과 자신들 사이의 연결 고리나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성경 족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의 연결 고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거룩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족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더 거룩하게(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먼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끝없는 추측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우화나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들은 "어리석은 방해물 silly distractions"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무익한 관행이 가져올 결과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논쟁과 논란을 야기했고, 신자들이 진리를 배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에베소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파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나 터무니없는 추측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여러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듣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자신의 온라인 조회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농담조로 성경 속 거인이나 UFO에 대한 연구를 올리면 조회수가 수천 명이 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흥미롭고 귀를 즐겁게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끌립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서를 장마다, 구절마다 연구하는 내용을 올린다면 단지 몇백 명만이 조회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유익할까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신기함과 호기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오락거리의 결과는 곧 드러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성숙한 신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5 Now the purpose of the commandment is love from a pure heart, from a good conscience, and from sincere faith,

Here's a question for you to consider. What should be the ultimate aim of a bible teacher or pastor? Should they strive to constantly create debate, controversy, hatred and division? Are they in the business of sowing doubt and uncertainty in their followers. Or, should they seek to cultivate the hearts and minds of their hearers so that they demonstrate Christ like love in their daily lives. The answer should be obvious. The aim of gospel ministry is the production of love.

Now this is not to say that pastors and bible teachers should not challenge their hearers. At times, we all need to be challenged or questioned about our views, beliefs and lifestyles. But this challenge should be to shake us from our foolish worldly way of thinking and acting in order to bring us into line with God's will.

This is why these false teachers in Ephesus must be opposed. What they were doing was motivated by pointless trivial obsession. They were majoring on the minors. Focusing on matters and issues that were totally unnecessary. Their speculative nonsense would never bring about true love. This is because in their hearts they were not truly aligned with God's plan and purpose.

A true leader by contrast should be motivated by pure Christian love. They are put in this position by God to help their flock become more Christ-like. This is not going to happen if the focus of the teaching is on myths and endless genealogies. Or for that matter if the focus is merely on mechanical law keeping.

When Paul speaks of the importance of love that flows from a pure heart he is talking about a heart which is untainted by selfish motives or impure desires. The heart in scripture always denotes the inner core of a human being. It is the seat of our spiritual emotions and desires. When our heart is in line with the teachings of Jesus we are in a place to instruct others.

Paul also stresses the significance of a good conscience. We are to strive to live in a way that is in alignment with God's moral standards and principles. Once again we cannot properly love and serve others when we are living in a way that is contrary to what God wants.

Finally, h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incere or unfeigned faith.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an

authentic and unwavering belief in the truths of the gospel.

Allow me to put all this together and give you a summary statement. When we approach God's commandments with love in our hearts, we are able to carry them out with genuine care and compassion for others. Having a good conscience means living in alignment with our values and principles. This allows us to make choices that uphold our integrity and honour God's teachings. Maintaining a sincere faith means trusting in God's wisdom and guidance wholeheartedly, believing in the significance and goodness of following His commandments.

So, when we consider this verse, we are reminded that the Christian life is not simply about mechanically following rules. Living in a good and God pleasing way comes from a place of love, purity and faith.

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교사 또는 목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끊임없이 논쟁과 논란, 증오, 분열을 조장해야 할까요? 신도들에게 의심과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양육하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복음 사역의 목표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와 성경 교사가 청중에게 도전하지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견해,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해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우리를 어리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을 배척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미미한 것을 중요시하고, 전혀 불필요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추측성 허튼소리는 결코 참된 사랑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진정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지도자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양하는 양들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의 초점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면, 혹은 단순히 기계적인 율법 준수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청결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이기적인 동기나 부정한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마음은 항상 인간의 내적 중심을 뜻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감정과 욕망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선한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과 원칙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접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연민으로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지키

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랑, 순결,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6 from which some, having strayed, have turned aside to idle talk,

Paul again refers to the "certain persons" who have gone astray. You will note that these individuals still remain unnamed. The implication seems to be that Timothy knew exactly who these people were and so it was unnecessary for Paul to explicitly identify them. Paul then goes on to highlight what had happened to these individuals.

These people had diverted from the pure heart, good conscience, and sincere faith mentioned in the previous verse. His description of these individuals is interesting. He says they have "strayed," (*astochēō*). In the King James the word used is "swerved." I think the King James better captures the intent. The idea being conveyed is that the "certain persons" have missed the mark. Picture an archer shooting an arrow at a target. For some reason the arrow swerved mid-flight and failed to hit the target. These people were once were on the right trajectory but now they are unable to hit the gospel target.

Paul then tells us that they have "turned aside" (*ektrepō*). The Greek word conveys the idea of twisting or turning. It is commonly used in medical contexts to describe a dislocated limb. You may have witnessed someone having an accident and dislocating an arm or leg. The body part in question is distorted and no longer in proper alignment with where it should be. So to put what Paul is saying here into context, the certain persons in view had gotten their beliefs "bent out of shape." They had taken what was good, healthy and properly formed, and twisted it into something bad, unhealthy and unnatural. This was a harsh criticism indeed on these men.

Finally, Paul informs us that they had slipped into **idle talk**. What he means is that their discussion and teaching time had descended into vain, empty and pointless talk that went nowhere. I'm sure all of us have sat through interminable meetings in which the discussion proved unproductive. An hour or more of talk that led to nothing of merit. Now, Paul is not suggesting that we shouldn't have time talking together or even that there may be times that we fail to come to an agreement. But what he is opposing is purposeless talk that is never intended to educate or enlighten. Let me give you an example.

It has been said that medieval scholars would often get into lengthy debates about pointless, trivial matters. I suppose that on long dark winter nights in the monastery there was not much else to do. One of the issues they argued over was how many angels could dance on the point (head) of a needle. Yes, I know it's a vital topic. Of course, it's an issue that can never be resolved, perhaps that was the point. We do not have sufficient evidence to come to any kind of definitive answer. And far more importantly, WHO CARES, IT'S NOT IMPORTANT. This is an example of what Paul is condemning.

Let us turn now to our final verse for today.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계속해서 바울은 길을 벗어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정체성을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 구절에서 언급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길을 벗어났다 **strayed**"(*astochēō*)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벗나갔다"(*sweve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그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의 뜻은 "어떤 사람들"이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궁수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화살은 날아가는

도중에 빛나가 과녁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 올바른 궤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복음의 과녁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빠졌다 turned aside**”(ektrepō)고 말합니다.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 뒤 틀리거나 돌아갔다 twisting or turning 입니다. 의학적으로 탈구된 팔다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군가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탈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빠져서 더 이상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구절에서 한 말을 설명하자면,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믿음이 “**변형 bent out of shape**”되었습니다. 그들은 좋고 건전하며 올바른 것을 악하고 불건전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가혹한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헛된 말에 빠졌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의 토론과 가르침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헛되고 공허하며 무의미한 이야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회의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토론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 넘게 토론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못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을 갖지 말라고, 심지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가르침이나 양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헛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세 학자들은 종종 무의미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 장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수도원에 서의 길고 어두운 겨울 밤에 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논쟁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늘 끝(머리) 위에서 얼마나 많은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주제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비난하는 바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 desiring to be teachers of the law, understanding neither what they say nor the things which they affirm.

Paul tells us here about the desires or motivations of these certain individuals. These individuals were either Jewish converts to Christianity, or else Gentiles who were attracted by Judaism and the structure it offered. We know that the early church struggled for a time with Jews who wanted to make following Christ conform to Jewish practices. The Apostle Paul referred to such people as “Judaizers” (see Gal 2:14).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desired to be teachers (rabbis) of the law. The reference here to “the law” most likely means the Mosaic Law. Paul probably did not mean that these false teachers failed to understand the letter of the Law. Though this may have been true in certain cases. He probably meant that they did not really understand what the Law was really saying, or not saying. Simply put these men in their ignorance missed the point of the Law.

Now, I should point out that the desire to be a leader in the church is a good thing. As the Apostle Paul writes,

This is a faithful saying: If a man desires the position of a bishop, he desires a good work. (1 Tim 3:1)

But in the case of these men two significant obstacles stood in their way to being good leaders. The first was that they lacked understanding or true knowledge. They had controversy, enthusiasm, and speculation, but none of the required understanding expected of a teacher. People in positions of

leadership be that in the church, or in wider society are expected to have the requisite knowledge and skills.

We are very blessed in this church to have Pastor Bell with us. As a leader in the church he has devoted many years to careful research and study. This means he possesses a vast store of knowledge. If we were to ask him a question on theology, the bible or church history he'd probably be able to give us an answer. If he was unsure on something I'm sure he'd say as much and go away and do some research on the subject. But these certain individuals in Ephesus were not like Pastor Bell. They wanted to be teachers but lacked the necessary knowledge.

The second obstacle was their extreme pride. They were not only misinformed and lacking knowledge, but were also arrogant. They were prone to speaking when they should have been inclined to listen. Sadly such a criticism applies to many in positions of power even today.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what Paul has to say about the law and how it should be used.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여기서 그 사람들의 욕망이나 동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와 그 의식에 매료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유대교적 전통에 맞추려는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유대교주의자들 Judaizers "(갈라디아서 2:14 참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교사(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아마도 모세의 율법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무지함으로 율법의 요점을 놓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좋은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딤후 3:1).

하지만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중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해력이나 참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논쟁과 열정, 그리고 사색은 있었지만, 교사에게 요구되는 이해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벨 목사님이 함께하시어 정말 기쁩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면밀한 연구와 학습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신학, 성경, 교회사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면, 분명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 주제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벨 목사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필요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극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말이 앞섰습니다. 안타

갑게도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teaching.

저는 오늘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The need to be discerning

In Paul's day opportunities for false teachers were somewhat limited. They could speak in the market places or street corners or possibly gain access to a church or synagogue.

This meant that they were easy to avoid. Once you knew that so-and-so preacher was a deceiver you could go to worship or shop somewhere else.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avoid false teachers and their deceptions today. This is because we are bombarded by deception today. It can come through many forms, books, magazines, online sermons, worship music and the internet to name just a few. Often the false doctrine can be very subtle. Sometimes eluding even the notice of those in church leadership positions. As I pointed out before it's easy to spot blatant errors. But smaller things can sometimes sneak past unnoticed. We might think an individual or an organisation is biblically sound. We may believe that they are providing a great teaching resource when in fact there is something rotten at their core. We should remember that people following false teachers do not realise that they are being deceived. If we highlight this fact to them, they may well be offended. They may become angry that we are daring to call this "godly" individual a fraud or fake. They are likely to accuse us of being unkind and judgemental to point out this person's failings. But actually to show discernment and point out deception is the loving thing to do. We are loving our Christian brother or sister by warning them of the peril or danger they may not have noticed.

So let us all be serious about what we consume or allow others in our orbit to consume. If we are parents this means our children. Let us all be more discerning and run what we watch, read, listen to or participate in up against God's Word. If it passes this test then it is safe and good for us to use it.

1. 분별력이 필요하다

바울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할 기회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나 거리 모퉁이에서 설교하거나 교회 또는 회당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피하기가 쉬웠다는 뜻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속임수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임수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책, 잡지, 온라인 설교, 예배 음악,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거짓이 퍼져 나갑니다. 거짓 교리는 매우 교묘합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노골적인 거짓은 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미묘한 속임수는 간과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부패해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훌륭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면, 그들은 분명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감히 그 "경건한 godly" 사람을 사기꾼이나 가짜라고 부르는 것에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를 무례하고 비판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접하는 것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접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분별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참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2 Have we strayed or turned aside?

In today's passage we read about how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had drifted away from the truth. They had been seduced by myths and fables. They had allowed their interest in such things to distract them from what was truly important.

It's an easy trap to fall into. We are all prone at times to become fascinated by things that are mysterious and intriguing. For example many people become fascinated by the study of demons (demonology). Many speculative books have been written on this subject. Now, it's not wrong to spend time studying what the bible has to say about demons. In fact, we all should have some knowledge on this subject. However a careful balance is needed. We can easily devote too much time to these things. Time when we are taken away from what really ought to occupy our hearts and minds. As believers our chief concern or interest in life ought to be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So let us stand back and evaluate our Christian lives. Do we still have a passion and desire to seek after God? Do the daily tasks of discipleship still excite us? Do we look forward to reading the Word, being in prayer or worshipping through song? If not, let us now recommit ourselves to God. Let us ask for the Holy Spirit's help to rekindle that fire so that we do not stray or turn aside from the truth of the gospel.

2 우리는 길을 벗어났거나 빗나갔나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화와 우화에 현혹되었고, 그런 관심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비롭고 흥미로운 것에 매료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귀신 연구(악마학)에 매료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추측성 책들을 씁니다. 물론 성경이 귀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진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할 것들을 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을 평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고대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